

고지도를 활용한 지역지리 학습

권선정* · 최진성**

Teaching and Learning of Regional Geography through the Old Maps

Seon-Jeong Kwon* · Jin-Seong Choi**

요약 : 본고는 고지도가 지역이해를 위한 수업자료로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고지도를 활용한 지역지리학습의 이론적 기초로서 그에 대한 해석적 접근의 가능성을 제시한 후, 고지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특성들과 관련된 지리교육적 개념들을 도출해 보았는데, 가령 입지, 인간과 환경간의 관계, 지역 내 경관요소들의 공간관계, 장소 등의 개념이 그것이다. 고지도를 활용한 지역지리학습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지역이해를 위해 도출되는 개념의 독특성보다는 그러한 개념과 관련된 제 현상들의 특성을 어떻게 파악해 볼 것인가 하는 접근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도에 표현된 제 현상들의 형태적 특성 외에 의미읽기(해석)를 통한 개념의 이해와 그를 통한 지역이해가 고지도 활용에서 주목할 부분인 것이다.

이를 기초로 고지도 활용을 통해 도출된 개념 중 먼저 입지개념을 중심으로 1차시 수업을 구성해 보았는데, 학습자들의 흥미유발이나 참여도를 높이는 수업자료로서 고지도는 몇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고지도 활용을 통한 사회과통합 교육의 구성 및 지역 내 역사·문화경관의 체험 학습을 위한 기초 자료의 제공을 통한 가치교육의 제고 등이 그것이다. 차후 적어도 4-5차시 이상의 수업안 구성을 통한 고지도 활용학습이 시도된다면, 입지 개념 외에 여타의 지리교육적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고지도, 지도텍스트, 코드, 해석, 입지, 공간관계, 인간-환경간의 관계, 장소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old maps as the teaching material for regional geography education. For that time, a lot of teaching and learning through maps have focused on the topographical maps and statistical maps produced by modern cartographic methods. So we established some theoretical bases for interpreting(or reading) the old maps as a geographical text. And we considered the old map as the construction of form and meaning, reflecting the epistemological basis related to nature and human, and the social relation. And then, we extracted some geographical(geography education) concepts for regional geography: location, relation between nature and human, and locational, social relation of geographical landscapes, place, etc. Finally, we applied these theoretical bases and map interpretations to the practical teaching and learning for regional geography. Such teaching and learning through the old maps suggested some meaningful results and possibilities for

*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Full-time Researcher, The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Hannam University), sjkwon85@dreamwiz.com

** 전주공업고등학교 교사(Teacher, Jeonju Technical High School), cjsps@hanmail.net

the integration of social studies education, regional geography, value-laden education.

Key words : old map, map text, code, interpretation, meaning, location, relation between nature and human, spatial relation, place, regional geography

I. 머리말

본고는 학습자들의 일상적 삶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지역(향토, 고장) 이해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지역지리학습을 위해 고지도가 유용한 수업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역지리학습은 지역의 이해를 그 목적으로 하는 지리교육의 주요한 학습활동이다.

여기서 지역이해 즉, 지역의 특성(지역성)을 이해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역의 특성은 지역이 실재한다는 전제위에서 가능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은 하나의 체계로서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내포하기에 그것은 전체이기도 하고 부분이기도 한 두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지역 이해의 방편으로 두 가지 상이한 접근이 요구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하나는 전체로서 지역을 파악하는 측면이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분들의 집합으로서 지역을 이해하는 측면이다(박서호, 1993). 이와 관련해 본고에서는 지역을 다양한 제 지리적 현상들이 충전되어 있는 총체로서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그것이 인간들의 다양한 삶의 경험이 녹아있는 의미체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그것은 '장소'로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장소를 구성하는 다양한 의미체들 또는 현상들은 그 동안 지리학의 주요한 연구대상이기도 했던 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장소로서의 지역이해를 위한 한 방편으로 '경관을 통한 장소 이해'는 지역을 구성하는 단위요소들의 특성을 파악해 봄으로써 지역을 이해하는 방편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관요소들의 특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흔히 어떤 현상의 특성이란 하고 하는 것은 그러한 현상과 관련된 언어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적 표현은 개별 현상들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된 범주(category)에 포함된 제 현상들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특히 후자의 것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개념은 현상들의 특성을

통해 구분되는 범주를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개념들간의 관계는 결국 다양한 범주로 묶여진 현상들간의 관계를 반영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현상들의 특성-범주-개념간의 관계를 설정할 경우, 지표상의 제 현상들에 관심 갖는 지리학에서 의미 있는 개념들은 결국 다양한 범주로 묶여지는 지리적 현상들의 특성이 언어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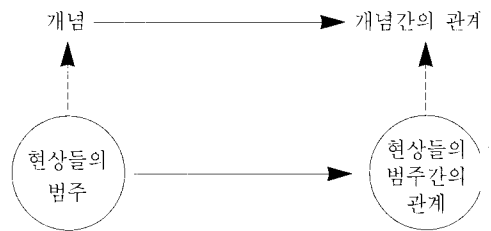


그림 1. 현상들의 특성-범주-개념간의 관계

따라서 경관을 통한 지역(장소, 향토) 이해는 제반 경관요소들의 특성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개념들의 이해가 병행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해, 경관을 통한 지역이해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지역지리학습은 지리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입지, 공간관계,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 장소 등의 개념이나 개념들간의 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고는 지역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지리학습에서 고지도가 교수-학습 자료로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고지도에 표현된 다양한 경관요소들 또는 요소들간의 관계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지리교육적 개념들에 주목하고자 하며, 그것이 실제 수업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부가적으로 수업실제를 병행해보고자 한다. 물론 연구자들이 옛 전주부의 고지도를 통해 시도해 본 지역지리학습의 실재는 그 완성도 여부보다는 시론적 시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II. 고지도 활용의 이론적 기초

1. 지도학습과 관련된 선행연구 개관

고지도를 활용한 지역지리학습이 그동안 지리교육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도학습과 관련된 주요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이 지도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의 실태를 먼저 분석한 후, 초·중등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리교육과 관련된 주요 이론들을 접목하여 지도수업과 관련된 수업모형 및 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것들이 주요한 흐름이었다. 이 논문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위해서 연구목적, 이용된 지도 유형, 연구와 관련된 이론, 실제수업의 적용 여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연구목적에 따르면 대부분의 논문들이 지리교육에서 지도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980년대까지는 주로 지도학습의 실태분석(정인철, 1966; 한인수·송중헌, 1977; 김만곤, 1988)과 지도학습과 관련된 주요 개념의 추출(이현옥, 1977) 및 지도학습의 의의(남상준, 1987)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부터는 실제수업에서 지도학습과 관련한 구체적인 개념들, 즉 위치·축척·지도기호·방위 등을 지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습시키려는 노력들(박병수, 1990; 장영진, 1991; 권동희, 1994; 김창환, 1995; 김덕순, 1998; 최남수, 1998, 1999; 홍기대·신금순, 1999; 남상준, 2003; 양혜련, 2003; 김석연, 2003; 박주희, 2003)이 대부분이었다. 2000년대에는 구성주의와 관련된 지리교육적 이론 개발의 노력들이 지도학습에도 적용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구성주의와 관련한 웹기반 지도 수업(정인철·심혜경, 2001)과 공간표상능력 평가(최남수, 2001) 등이 있었다.

둘째, 지도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자료인 지도를 중심으로 볼 때, 그동안의 지도학습들은 대부분 지구의·세계전도·우리나라 전도 등의 소축척 지도, 행정지도 등의 중축척 지도, 그리고 지형도 및 조감도(최남수, 2001) 등의 대축척 지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 교과서의 통계지도(이현옥, 1977) 및 역사지도(송인주, 1999), 고장의 그림지도와 초·중등학교의 백지도(홍기대·신금순, 1999; 박계

순, 2003), 웹기반의 컴퓨터를 이용한 지도(정인철·심혜경, 2001), 그리고 투명 모형도(한혜경, 2003)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고지도와 관련된 연구들로는 향토사 학습에 고지도를 활용한 연구(장재훈, 2002)와 국토인식의 제고를 위해 지리학습에서 고지도를 이용(이상균, 2003)한 사례가 있다. 이외에도 지리학습에 직접 적용한 것은 아니지만, 고지도를 소개(권정화·이민부, 2003)하거나 해석적으로 접근(권선정, 2003)한 연구들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컴퓨터 활용수업을 통한 다양한 지도제작 시도나 기존의 지도자료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리부도 활용 실태와 문제점 분석(임병조, 2003),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그래픽 지도의 제작(김호실, 2003), 원격탐사와 GIS를 이용한 지도 개발(김동실, 2003), 지리부도의 통계지도 작성의 개선 방향 제시(신근하, 2003), 3차원 입체지도의 제작 및 활용(김재기, 2003), 축척별 지도요소의 표현방법 개선의 필요성 제시(김남신, 2003), 그리고 지도제작과 GIS를 위한 제언(한균형, 2003) 등이 대표적이었다.

셋째, 지도학습을 위한 이론적 배경들은 다음과 같다. 지도와 지역학습의 연계를 위한 지리개념들의 중요성 인식(남상준, 1987), 학습자들의 학습발달단계에 따른 지도학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간인식과 관련한 발달심리학적 접근(장영진, 1991; 최남수, 1998, 1999; 홍기대·신금순, 1999), 지도학습에 필요한 교재구성을 위한 문화역사적 관점의 접근(남호엽·조복희, 1999), 그리고 지리교육의 구성주의적 관점을 지도학습에 적용(정인철·심혜경, 2001; 최남수, 2001) 한 것 등이 그것이다.

넷째, 실제수업에의 적용 여부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에는 대부분 지도수업과 관련되더라도 실태분석을 위한 질문지 또는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지도학습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동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도학습과 관련된 지리적(지리교육) 개념, 학습방법, 용어 등에 있어서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양하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학습자들도 용어나 개념상의 혼동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다양한 방법론적 시도에 따른 개념의 도출이나 수업방안 구성, 그리고 그에 기초한 실제 지도학습의 병행 등이 부족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둘째, 이러한 그동안의 상황과 관련해 이론적 기초, 방법, 지도학습 자료 등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현장에서 수업목적이나 학습자들을 고려하여 컴퓨터 등을 이용한 지도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셋째, 대부분 현대 지형도와 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 방법에 의해 작성된 지도들을 대상으로 학습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누적되어 온 과거의 경험이나 삶의 체험과 관련된 정보는 사실상 배제될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고지도와 관련된 지리수업의 적용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2. 수업자료로서의 고지도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동안의 지도학습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 주목한 지도수업자료들은 주로 현대의 과학적 지도제작기법에 의해 재현된 지도학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전통적인 공간인식 체계의 반영물이자 지리적 구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고지도는 그 관심영역에서 배제되어 온 것이다.

이것은 지도가 지표상에 실재하는 제 현상을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해 주었을 것이라는 실증주의적 인식론¹⁾ 그리고 서구의 직선론적 역사관과 관련하여 진보된 과학기술의 적용이 실재하는 세계를 과거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재현해줄 것이라는 믿음 이 지도를 바라보는 입장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로 말미암아 현대 지도학의 여러 방법들을 통해 구성된 지도학적 재현물들은 더욱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개선된 공간정보를 담고 있거나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Laudan, 1977, 2). 이러한 서구의 직선론적 역사관이나 실증주의적 인식론에 기초한 지도의 제작, 평가는 심지어 '과거의 지도'들을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특히 현재의 서구(특히 유럽) 중심의 지도학 입장에서 볼 때, 그 외 지역 또는 문화권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지도 재현물들을 열등하게 간주하게끔 하기도 한다(Harley, 1987-8, 70-75).

이러한 인식론적 차원 외에 지도라는 지리학적 재현물을 통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리학적 개념의 특성도 그동안 고지도가 배제되어 온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위치, 거리, 방위, 축척, 또는 공간관계 등 지리학적(지리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개념들은 주로 현상과 관련된 특성 중 '형태중심적' 측면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리학적 재현의 한 유형으로서 지도는 일정한 의사소통체계에서 마치 언어와 같이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현상(sign)으로 읽혀질 필요가 있다²⁾ 기호현상이 그것의 형태적 측면인 기표(記標 시니피앙)와 기의(記意 시니피에)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때, 지도 역시 지표상의 제 현상을 담아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또는 의도적으로) 형태적 측면과 의미차원이 결합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거의 그림에 가까울 정도로 보여지는 고지도는 형태의 측면 외에 의미차원이 배제될 경우 거의 무의미한 기호현상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듯 수업자료로서 지도를 바라보는 인식론적 차이나 지도를 통한 특성 파악 즉, 개념도출의 과정에서 형태중심적 측면에 치우치다보니 고지도를 활용한 지리학습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그동안의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은 전통적 공간인식체계의 반영이자 의미체라고 할 수 있는 고지도에 관심 가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고지도는 그것이 담고 있는 지역단위와 관련해 주목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군현지도의 경우 지도화 된 공간단위는 학습자들의 경험이 녹아있는 일상적 생활 세계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시, 군, 면 단위 위주이다. 이것은 실제 지도를 통한 지역지리학습에서 학습자들이 지도상에 표현된 제 현상들의 실제 상황이나 입지 등의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건이 된다. 특히 그동안 일상적으로 경험되기에 지나치기 쉬웠던 여러 역사적, 문화적 의미체들을 고지도를 매개로 한 지리교육의 학습대상으로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낯설게 보기'를 통한 흥미유발이나 적극적 참여 학습, 그리고 주변 생활세계의 이해 등과 관련해 사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역지리학습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리학적 개념이나 개념간의 관계 이해, 그리고 최종적인 지역이해의 과정에서 고지도를 통해 도출해낼 수 있는 요소들은 그것이 지리학습의 유용한 수업자료로서 주목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III장에서 입지, 인간-환경간의 관계, 공간관계, 장소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3. 지리 텍스트로서의 고지도

지도는 지표상의 제 공간현상에 관심 갖는 지리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지리학적 표현수단이다. 현재의 지도학적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축척(scale), 투영법(map projection), 기호(symbol) 등을 통해 지표상에 실재하는 자연적, 인문적 요소를 2차원 평면 위에 압축적으로 재현(representation)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지도는 다양한 지리학적 재현형태나 문학텍스트와 같은 재현의 한 수단으로 여겨져 오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Harley, 1989, 82).

본고에서 지역지리학습을 위한 수업자료로서 고지도에 주목한다고 할 때, 그것은 앞서 살펴본 서구의 실증주의적 인식론이나 직선론적 역사관의 입장과 관련된 정확성, 사실성, 객관성 등으로 평가되는 측면보다는 그것이 의사소통체계에서 일정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의 의미체로 접근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지도 읽기와 관련된 해석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고지도는 '형태'의 측면 외에 '의미' 차원을 포함하여 이해되어야 할 지리 '텍스트(text)'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텍스트라는 개념은 도서관 서고에 꽂혀 있는 인쇄물이나 서적 등의 전통적 개념이 아니다.³⁾ 그것은 본고에서 관심 갖는 지도를 포함하여 지리학의 주요한 연구대상으로서의 경관이나 장소 등을 해석(interpretation, reading)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문학적 은유(metaphor)이다.

지도를 해석적 접근의 대상인 텍스트로 규정할 경우, 이와 관련해 '지도텍스트의 자의성'과 텍스트 해석을 위한 이론적 기초로서 '텍스트(text) - 코드(code)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지도텍스트의 자의성은 그것을 구성하는 '형태'와 '의미'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이것은 기호학과 관련시켜 이해할 때 그 특징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데, 기호학에서 말하는 기호(sign)는 '기표'와 '기의'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간의 관계는 '자의적(恣意的)'일 뿐이다.⁴⁾ 즉, 동전의 양면처럼 기호를 구성하는 기표와 기의간에는 어떤 고정된 자연적·필연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임의적 관계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記號의 恣意性').

이것은 하나의 기표(기의)에 여러 가지 기의(기표)가 관계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듯 기호가 기표와 기의라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들간의 관계가 자의적이라고 하는 기호의 본질적 특징은 지도텍스트에 대한 해석적 접근을 위해 의미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즉, '기호의 자의성'에 기초한 '지도텍스트의 자의성'이 그것인데, 이것은 지도를 '형태(기표)'와 '의미(기의)'의 구성물로 보고 그들간의 자의적 관계를 지도의 중요한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지도를 구성하는 특성 중 재현상의 형태적 측면이 음식물을 담은 용기라고 한다면, 의미는 그 안에 담고자 하는(생산자 측면, author) 또는 담겨있다고 여겨지는(경험자 측면, reader) 내용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텍스트의 자의성에 기초하여 이해되는 이들 용기(형태)와 그 안에 담겨지는 내용물(의미)간의 관계는 본질적, 자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생산의 주체나 그 경험자에 의해 자의적, 임의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지도텍스트의 자의성은 결국 지도에 표현된 재현상의 특성을 형태 중심으로 파악할 경우 그와 관련된 개념이나 지역 이해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관심 갖는 고지도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형태와 의미간의 자의적 관계로 이해되는 텍스트로서의 지도에 대한 해석적 접근을 위한 이론적 기초로서 '텍스트-코드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유형과 수준의 사회적 관계망 속에 얽혀 있는 인간주체들이 여러 수단을 통해 각자가 의도하는 바를 관계망속에서 실현하고자 할 때, 지도를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들은 의사소통체계 내에서 일정 형태를 가지는 의미체로서 언어적 구성물(談論)이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저자나 독자의 입장으로 관련되는 인간주체들에 의해 읽혀지거나 읽히지도록 고안된 의사소통체계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Duncan and Duncan, 1976, 209-210).⁵⁾ 그런데, 의사소통체계에서 지도가 의미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하거나(저자 입장) 또는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읽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독자 입장) 어떤 공유되는 규약·체계(코드, code)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도텍스트가

지니는 의미는 감각기관을 통한 일차적 경험대상으로서의 형태와는 다른 영역이기 때문이다. 기호학적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인간 행위나 그 산물은 의미를 상호소통하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결과물로서 그것의 생산(저자의 입장)이나 읽기(독자의 입장)의 바탕에는 어떤 '규약이나 차별의 체계 즉, 코드(code)'가 내재해 있다는 가정을 한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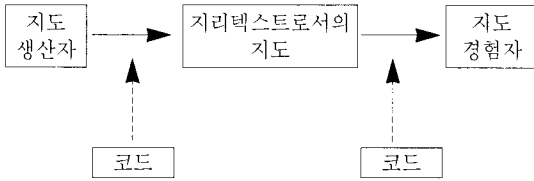


그림 2. 텍스트 - 코드 관계

이와 관련해 볼 때 고지도의 구성 즉, 그것을 생산하거나 읽어내는 과정에서 공유되고 있었던 코드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수업자료로서의 고지도 읽기를 위한 선행 작업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지도는 전통적 공간인식체계나 지리적 지식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기에, 그것이 현대의 지도제작이나 공간인식체계 등과 관련해 공유하고 있는 코드로 그 특성이 적절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러한 상황도 그동안의 지도학습 관련 선행연구들이 고지도에 주목하지 못한 이유가 아닌가 한다.

III. 고지도를 통한 지리교육적 개념의 도출

본고는 고지도가 지역이해를 위한 수업자료로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지도에 표현된 다양한 경관요소들 또는 요소들간의 관계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지리교육적 개념들에 주목하고자 하는데, 이들 개념 또는 개념간의 관계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도에 표현되는 제 현상들, 현상들간의 관계의 특성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지도를 통해 도출해낼 수 있는 지리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개념들은 결국 지역지리학의 주요한 목표인 지역이해를 위해 필요한 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지리학이나 지리교육에 있어서 지역지리(학습)의 주요한 연구주제로 설정된 입지(location), 장소(place), 지역(region),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human and earth relation), 이동(movement) 등의 개념(권동희, 2000; 김일기, 2001)과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입지, 인간과 환경간의 관계, 지역 내 경관요소간의 공간관계, 장소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볼 때, 고지도를 활용한 지역지리 학습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지역이해를 위해 도출되는 개념의 독특성보다는 그러한 개념과 관련된 제 현상들의 특성을 어떻게 파악해 볼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도에 표현된 제 현상들의 형태적 특성 외에 의미읽기(해석)를 통한 개념의 이해와 그를 통한 지역이해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1. 입지(location)

입지는 지도에 표현된 제 현상들의 위치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지도학습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이것을 수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 상대적 위치 등으로 구분하여 특히 경·위선의 교차로 표시되는 수리적 위치에 주목하였다(이철욱, 1977; 박병수, 1990; 김덕순, 1998; 김일기, 2001).

그러나 지역이해와 관련해 지표상의 제 현상들의 일차적인 지리적 특성으로서 위치 개념은 그러한 현상들간의 관계속에서 이해되는 입지 개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향토 차원의 지역지리학습과 관련해 볼 때, 단순히 암기해야 할 내용으로 수리적 위치를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지도상에 표현된 제 현상들(자연, 인문경관)이 다른 현상들과의 관계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에 기초한 입지개념의 도출은 그러한 현상들로 구성된 지역의 개관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지개념은 지역이해를 목표로 하는 지역지리학 또는 지역지리학의 실체에 있어서 기본적인 서도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지리학(지역지리학)은 지역을 구성하는 현상들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지역에 대한 종합적 고찰)를 통한 종합적 사고능력의 신장을 그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입지개념과 관련해 실제 고지도를 통한 예를 살펴보자. 그림 3에 제시된 고지도는 현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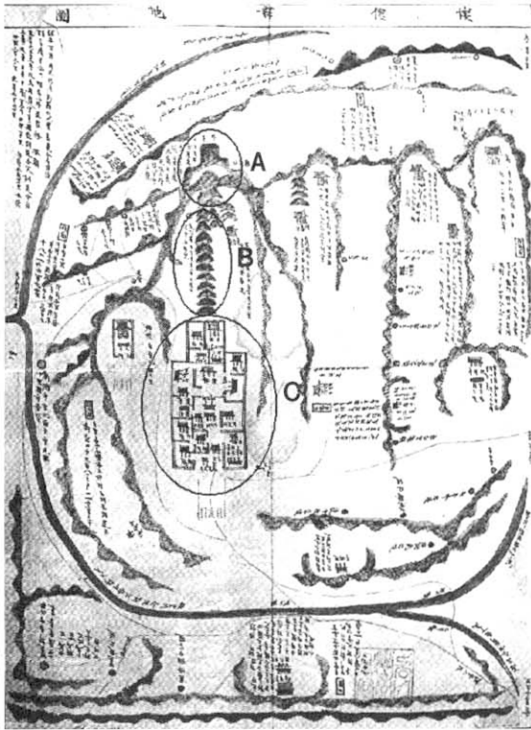


그림 3. 1872년의 회덕현 채색 지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인 과거 회덕현 지역의 1872년 채색지도이다. 지도에 보면 보통 북쪽으로 인식되는 지도상 위쪽에 회덕의 상징적 중심(鑣山, 풍수상 主山)인 계족산(A)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의 실제 방위는 동쪽에 해당된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지도보기에 익숙한 입장에서는 지도를 시계방향으로 90° 돌려야 북쪽이 지도상 위쪽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계족산에서 뻗어내린 산줄기(B)는 실제보다 상당히 과장되어 있고, 그 자락의 끝에 몇 개의 건물들(C)이 위치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이들 산자락과 건축물의 위치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동시에 그동안 다양한 현상들이 복잡하게 표시되고 있는 지형도나 통계지도 등에 익숙한 입장들에게는 흥미를 불러일으킬만한 ‘낯설게 보기’의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현상들간의 관계(자연현상-인문현상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확인되는 형태 중심의 접근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의미차원의 해석이 필요하게 되는데, 가령 과장된 산자락은 전통적

인 마을입지와 관련해 익히 알고 있는 ‘배산임수’의 배산 즉, 풍수상 주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의 흐름과 관련하여 끝자락에 연결되듯 자리 잡은 건축물들은 이 지역의 행정 중심인 읍치경관(동헌, 객사 등)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인문현상으로서의 읍치경관의 입지는 자연요소인 진산 또는 풍수상 주산과의 관계속에서 상징적, 실제적 중심의 의미를 구성하는 의미 있는 공간개념임을 알 수 있다.

2. 인간과 환경간의 관계

앞서 고지도는 전통적인 공간인식체계의 반영물이자 지리적 구성물로서, 또는 ‘형태’의 측면 외에 ‘의미’ 차원을 포함하여 이해되어야 할 지리 ‘텍스트(text)’로서 접근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도를 해석적 접근의 대상인 텍스트로 규정할 경우, 그러한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하거나(저자 입장) 또는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읽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독자 입장) 어떤 공유되는 규약·체계(코드, code)의 존재를 ‘텍스트-코드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텍스트 해석의 이론적 기초는 고지도를 통한 인간-환경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인간-환경간의 관계는 지도텍스트-코드관계에서 코드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인간-환경간의 관계는 세계 내 존재에 대한 인식론적 차원의 개념으로 본고에서 관심 갖는 지도제작을 포함하여 지도에 담겨지는 제 지리적 현상을 구성(생산, 소비)하거나 재현하는 인간의 공간적 행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공간인식체계 또는 전통지리학으로 이해되어 온 풍수(風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고지도를 통한 인간-환경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풍수에 대한 이해, 특히 풍수의 인식론적 특징을 살펴보는 작업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풍수의 인식론적 특징을 서구의 인간중심적 세계관(환경관, 인간관)에 대비되는 생태중심적 입장으로 이해할 경우,⁶⁾ 고지도를 통해 드러나는 인간-환경간의 관계는 서구의 환경결정론이나 가능론 보다는 생태적 관계가 부각될 수 있다.⁷⁾

이러한 생태적 관계의 지도상 재현은 앞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경관 중 지역의 상징적 중심이 되는 풍수상 주산을 북쪽으로 인식되는 지도의 위쪽에 위치시키는 것이나(실제 주산이 북쪽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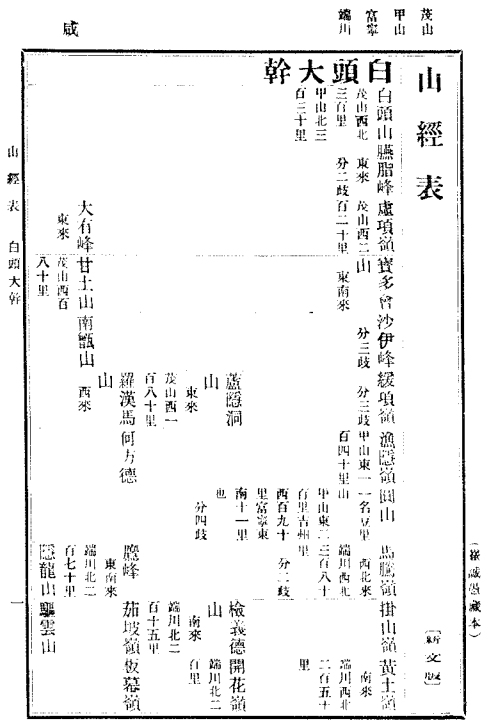


그림 4. 「산경표」의 백두대간

하지 않더라도), 그로부터 읍치경관까지의 산(來龍) 맥세의 흐름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표현하는 것, 또는 읍치 내 인문경관 중 중심의 의미를 갖는 행정경관들을 사신사(四神砂, 청룡·백호·주작·현무)에 의해 둘러싸인 명당내에 위치한 것으로 재현하기 위해 이들 자연적 조건을 어머니의 자궁처럼 실제보다 왜곡시켜 표현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공간인식체계는 그림 4에서 보듯이 고지도에 재현된 산맥세의 흐름이 문자로 텍스트화 된 山徑表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는 인간의 족보와 같이 산의 족보를 정리한 텍스트로서 지도텍스트와 공유되는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확인할 수 있다. 고지도와 산경을 상호텍스트적 관점에서 볼 때, 고지도는 문자화된 텍스트의 시각화로서 이는 듣거나 읽는 텍스트가 아닌 보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지역 내 경관요소간의 공간관계

지도와 같은 텍스트들은 일정한 의사소통체계 내에서 코드를 공유하는 발신자(저자, 생산자)와 수신자(경험자, 독자)간에 단순히 메시지(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것만으로 그 기능을 다하지 않는다. 즉,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 공간인식체계(풍수)가 반영된 지리학적 재현형태로서 지도텍스트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지도에 재현된 의미는 기능적·실용적(풍수적) 차원 이상으로 정치적·사회적·경제적·종교적·미학적 차원 등 그것을 조성하거나 경험하는 인간들에 의해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도와 같은 경관텍스트가 사회적 과정(social process)에서 수행하는 역할 중의 하나가 이데올로기의 투영을 통한 사회적 관계(사회적 질서, 권위 등)의 '자연화(naturalization)'⁸⁾일 수 있다 (Duncan and Duncan, 1988)는 점에서 배제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고에서 관심 갖는 고지도의 경우 조선시대의 유교적 세계관(또는 이데올로기)이 투영된 다양한 경관요소들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기에(김덕현, 2004) 고지도 읽기에 있어서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자연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지도에 재현된, 또는 실제 체험학습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경관(자연적, 인문적) 요소간의 공간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례로 그림 5의 금산군 지도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공간현상의 계층화'라는 측면에서 경관요소들간의 공간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작은 원안에 표현되고 있는 경관요소들은 객사, 동헌 등의 행정경관이 주가 되는데, 이들은 풍수상 주산의 맥세가 이어지는 지역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음으로 해서, 그 외의 재지세력이나 일반 군민들과 관련된 경관 요소들과 차별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도텍스트를 읽는 일반 독자의 경우에도 쉽게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행정적 중심인 객사와 동헌은 다른 지도상의 재현 요소들에 비해 경계의 표시(홍살문, 누문 또는 내삼문)나 굵게 그려진 담장, 건물의 크기, 이들을 위포하는 자연적 조건 등을 통해 더욱 부각되어 재현되고 있다. 그러나 미시적으로 볼 때, 이들 간에도 공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들 경관요소들이 중앙과 지방, 왕과 신하라는 사회적 관계가 이원적 대비구조를 통해 재현된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작은 원과 큰 원 사이에 표현된 제사나 종교경관간의 관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의 지배층들에게 지방의 각 도시들은 예(禮)의 실천장으로서 각종 신령계 제



그림 5. 1872년 금산군 채색지도

사지내는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했다(김동욱, 1997). 그림 5의 금산군 지도에서도 향교(鄕校, 左後), 사직단(社稷壇, 右), 여단(廟壇, 左),⁹⁾ 성황단(城隍壇, 前) 등이 확인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지도에 재현된 이들 시설물의 위치가 앞서의 객사나 동헌과 같은 중심요소들을 포함하는 국면과 분리되어 사방에 포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국면을 형성하는 풍수 사신사(四神砂, 작은 원) 넘어 언저리에 자리잡음으로써 내부의 중심과 일정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이 때, 국면을 형성하는 풍수 사신사 중 특히 주산과 안산(案山, 주산과 마주대하는 산)은 '구분'을 위한 '자연적 경계'로서 그 형태가 더욱 강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행정경관과 제사경관들은 중심-주변부 관계로서 공간현상의 계층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관요소라고 할 수 있다.

4. 장소

장소는 인간들의 구체적 삶의 경험이 녹아있는 다양한 의미체들, 즉 경관요소들로 구성된 공간단위(지역)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장소로서의 지역이

해를 위한 한 방편으로 '경관을 통한 장소이해'의 과정에 주목 하였다. 따라서 장소이해는 앞서 살펴본 제 경관요소들의 특성과 관련된 입지, 인간과 환경간의 관계, 공간관계 등의 개념 이해를 통해 수행된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읍치경관 중 행정경관의 외곽 주변부에 위치하는 제사경관들은 읍치라는 '장소'를 의미 있게 하는 경계에 '입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소 이해와 관련해 그것의 시간상 변화에도 관심가질 필요가 있는데, 고지도 상에서 확인되는 경관요소의 변화를 통한 장소의 변화를 이해해 보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단위지역마다 제작 주제, 목적, 시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이종의 고지도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볼 때, 이들 고지도들은 경관요소의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각적 텍스트로 접근될 수 있는 것이다.

IV. 고지도를 활용한 지역지리학습의 실제

고등학교의 경우 지리수업 시간에 고지도를 활용하는 계기는 대부분 사회교과서의 첫머리에 나오는 '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 단원을 학습할 때이다. 그렇지만 이 단원에서도 고지도는 그것이 만들어진 시대의 지리적 지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 정도로 소개되고 나면 더 이상 다룰 기회가 없어진다. 즉 대동여지도와 비교해서 그 이전에 만들어진 지도들은 실제 모양과 다른 정확하지 않은 지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동여지도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만이 부각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고지도가 대부분 지리적 의미가 거의 없는 지도라는 편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고지도는 지역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지리학습에서 의미 있는 수업 자료로 이용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본고에서는 고지도를 활용한 지역지리학습이 어떻게 실제 수업에 적용될 수 있는지 전주(全州)의 고지도(텍스트)를 교수-학습 자료로 삼아 시도해 보았다(그림 6).

이를 위해 성취기준 관련 학습요소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문제해결학습을 전개하였다. 물론 여기서는 시론적 성격의 수업임을 고려하여 입지개념을 중심으로 1차시로 구성해 보았으며, 학습요소에 따



그림 6. 전주부 고지도(19세기 후반)



그림 7. 전주시 안내도(1:10,000)

의 입지에 대해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즉 학생들은 전주의 진산인 건지산과 전주객사의 배치 관계, 또는 전주객사와 동헌간의 좌묘우사(左廟右社)의 공간 배치 등이 고지도상에 재현되고 있음을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른 수업의 각 단계마다 간단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수업 전개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될 수 있는데, 먼저 전주부 고지도에서 읍치와 관련된 주요 경관요소들(자연, 인문경관)을 찾게 한 다음(활동 1), 전주 지형도(1: 5000, 또는 전주 안내도)에 고지도에서 찾은 경관들의 실제 입지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활동 2), 마지막으로 읍치경관의 구성 원리(코드)를 발표하도록 하였다(활동 3).

전개단계 2: 이제 고지도상에서 확인해 본 경관요소들의 위치를 실제적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지형도나 도시 안내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들 새로 준비한 지도에는 앞서 고지도상의 경관의 위치에 부여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표시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 후, 고지도에서 확인한 경관들의 위치를 대입하도록 하였다(활동 2). 보통 지도학습에서 사용되는 지도의 축척은 대략적 지도(1:25,000 또는 1:50,000)이지만 고지도에서 표현한 경관요소들을 찾기에는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1:5,000 지형도 또는 안내도가 필요하다. 이 지도들은 비교적 자세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손수 개 번호가 적혀진 경관요소들의 위치 및 명칭을 바로 찾아낼 수 있게끔 한다.

도입단계 : 실제 수업의 단계에서는 먼저 전시학습을 확인한 다음 동기유발을 위해 전주시의 주요 경관요소(경기전과 객사)의 사진 자료를 2장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이 사진을 보고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 온 전주시의 문화재임을 확인·발표한 다음, 본시의 학습목표를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그림 7에서 보듯이 경관요소들을 포함하는 진산이나 읍성의 윤곽, 또는 주요 가로망 등을 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경관요소들간의 입지관계에 기초한 위치파악을 통해 입지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이 경관요소들의 위치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축척, 방위, 거리 등 지도학습과 관련된 개념들에 대해 정확성을 기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지개념이 다른 고지도상의

전개단계 1: 우선 고지도상에 표현된 경관요소들의 위치에 번호를 표시한 고지도를 복사해 학급 학생 전원에게 나누어주고, 앞서 발표한 각각의 경관요소들의 명칭을 그 번호 옆에 알맞게 찾아 쓰도록 하였다(활동 1). 단, 개별학습보다는 조별학습을 위해 4명이 1조가 되어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성취 수준을 조정하였다. 이 때 교사는 조별활동에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학생들은 이 단계의 학습 활동에서 여러 경관요소들

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현대의 대축척 지도의 형태와 비교되는 고지도의 특성(의미)을 읽어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그 동안 지도는 '보는' 것이지 '읽는'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에 고지도 역시 그것이 그려지던 당시에는 의미 있는 지리정보를 담고 있는 대축척 지형도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줄 필요성이 있는데, 1872년 전국의 군현단위로 그려진 고지도(그림 3, 그림 5 등의 사례) 등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습자들은 지형도와 고지도를 자연스럽게 비교해 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실제 지표현상의 입지적 특성(위치, 거리, 방위 등)이 두 지도상에서 다르게 표현(재현)되는 이유를 해석해보는 토론학습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수업진행은 지도를 포함한 지리적 현상이 세계관이나 공간인식체계를 반영하는 구성물일 수 있음을 인식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를 통해 수업에서 사용되는 고지도 역시 그것이 제작, 사용되던 당시에는 저자(지도생산자)나 독자(지도경험자)들에 의해 공유되었던 증거 틀 또는 코드(공유되는 인식체계)가 있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전개단계 3: 이제 학생들은 고지도와 지형도의 비교 학습 후, 지도학습을 통한 개념 이해에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지도를 경험하는, 또는 고지도의 의미를 읽는 지도학습이 왜 필요한지 학생들 스스로 학습하는 활동단계에 도달하도록 하였다(활동 3). 이와 관련해 교사는 전주부 고지도를 통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또는 배산임수의 풍수 원리(또는 인간과 자연환경간의 관계)에 의한 경관요소간의 공간관계에 대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 보았다. 가령 전주의 진산인 건지산과 가장 가까운 곳에 객사가 위치하는 원리(풍수 코드)를 학생들에게 질문함으로써 바로 학습목표의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또는 객사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종묘(전주에서는 경기전)를, 우측에는 사직단을 배치하는 원리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이미 다른 교과목, 가령 「인간사회와 환경」(황만익 외, 2002)이나 「국사」에서 학습한 내용을 상기하거나 또는 앞으로 학습할 자료를 관련지어 보도록 하였다. 이것은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사회과통합 수업유형의 한 방안으로 고지도를 통한 지역지리학습의 의미

를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V. 맺음말

본고는 학습자들의 일상적 삶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지역(향토, 고장) 이해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지역지리학습을 위해 고지도가 유용한 수업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그동안의 지도학습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고지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관심을 가져온 것을 볼 때, 이러한 시도는 수업자료로서 고지도를 이용하는 시론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고지도를 활용한 지역지리학습의 이론적 기초로서 그에 대한 해석적 접근의 가능성을 제시한 후, 고지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특성들과 관련된 지리교육적 개념들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가령 입지, 인간과 환경간의 관계, 지역 내 경관요소들의 공간관계, 장소 등의 개념이 그것인데, 이들 개념들은 지리학이나 지리교육에 있어서의 주요한 연구주제에 포함되는 것이다. 결국 고지도를 활용한 지역지리학습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지역이해를 위해 도출되는 개념의 독특성보다는 그러한 개념과 관련된 제 현상들의 특성을 어떻게 파악해 볼 것인가 하는 접근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도에 표현된 제 현상들의 형태적 특성 외에 의미읽기(해석)를 통한 개념의 이해와 그를 통한 지역이해가 고지도 활용에서 주목할 부분인 것이다.

이를 기초로 고지도 활용을 통해 도출된 개념 중 먼저 입지개념을 중심으로 1차시 수업을 구성해 보았는데, 학습자들의 흥미유발이나 참여도를 높이는 수업자료로서 고지도는 몇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과통합 교육의 한 유형으로 고지도 활용학습이 의미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가령 고지도상에 표현된 경관요소들의 공간관계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선수학습의 내용이나 타 사회과교과와의 관련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차후 적어도 4-5차시 이상의 수업안 구성을 통한 고지도 활용학습이 시도된다면 입지개념 외에 인간과 환경간의 관계, 지역 내 경관요소간의 공간관계, 그리고 장소의 의미 및 변화 등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고지

도는 학습자들의 일상적 삶의 영역인 장소안에 존재하는 제 경관요소들에 대한 체험학습을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실태 이해와 보존의 필요성 등 사회과 영역과 관련된 가치교육을 제고시키는 수업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註

- 1) 실증주의적 인식론은 지도라는 지리학적 재현물이 실제하는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의 성격은 자연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 이럴 경우 실재하는 세계와 지도에 재현된 세계는 일치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지도에 표현된 세계는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된다. 또한 지도제작자는 이들 실재하는 세계에 대해 중립적(독립적) 입장에서 서서 수학적 도구나 체계적 관찰·측정 그리고 일반화 과정을 통해 마치 '자연'을 비추는 거울(a mirror of nature)' 처럼 실재하는 공간현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역할자로서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Wolter, 1975).
- 2) 이에 대해서는 「권선정, 2003, "경관 텍스트로서의 지도 읽기", 문화역사지리, 15(2), 61-82」 참조.
- 3) 문학비평가(이론가)나 문화인류학자들의 입장에 따르면, 텍스트는 본고에서 관심있는 지도 외에 '그림, 경관, 그리고 사회·경제·정치적 제도' 등을 포괄하는 확장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Barnes and Duncan, 1992, 5).
- 4) 여기서 '기표(시니피양)'란 음성으로 되어있는 청각적인 소리이미지(청각영상)나 문자로 되어있는 시각적 차원의 기호를 말하며, '의(시니피에)'는 그 언어가 의미하는 추상적 개념을 말한다. 그리고 '記號의 恣意性'은 기호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 언어학을 중심으로 기호학을 발전시켜려 했던 19세기말의 스위스 언어학자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가 제시한 언어이론의 제 1원칙이다(페르디낭·드·소쉬르(오원교 역), 1973: 91-94). 예를 들어 소리나 글자로 표현된 '꽃'이라는 말은 기표에 속하고 그 말을 듣거나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개념이 바로 기의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자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꽃이라는 '말(기표)'과 그것이 지시하는 '사물' 간에 어떠한 자연적·필연적인 일대일 상응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5) 따라서 지도텍스트는 의사소통체계에서의 언어현상과 같이 기어츠(Clifford Geertz) 식의 '중층적 의미체(thick text)'로 읽혀질 필요가 있다(Harley, 1989, 84). 여기서 지도를 'thick text'로 보는 것은 지도가 기어츠 式의 문화해석과 같이 기술이 아닌 'thick description'(해석)의 대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Geertz, 1973).
- 6) 이에 대해서는 「권선정, 2004, "생태중심적 환경관으로서의 풍수", 지리학연구, 38(3), 259-271」을 참고.
- 7) 풍수에서 전제하고 있는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 존재들은 동일 근원에서 출발한 '동기간(同氣間)'으로서, 그들 간

의 관계는 인과성이 아닌 동시성과 순환성을 그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생태적 동기관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생태적 동기관계로 이해되는 풍수 동기감응(同氣感應)은 생태중심적 환경철학의 동양적 표현으로 그 의미·구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8) 여기서 '자연화(naturalization)'라는 개념은 인간과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 실재를 마치 자연적, 본질적인 자연현상처럼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특히 경관텍스트에 투영되는 이데올로기의 기능이 이러한 사회적 실재의 자연화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기에 지표상에 존재하는 경관텍스트나 지도학적 재현물에 대한 실용적·기능적 차원의 의미해석은 자칫 순수한(naive) 읽기 차원에 머무를 수 있다.
- 9) 여단(御壇)은 독립병의 예방, 치료를 위해 제사지낼 주인이 없는 외로운 혼령을 국가에서 제사지내 주던 제단으로, 여제(청명일, 7월 보름, 10월 초 세 차례)는 3일주 성황당에서 發告祭를 지낸 후 본제를 지내도록 규정되어 있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183).

참고문헌

- 권동희, 1994, "지도를 활용한 효율적인 지리교육 방안", 지리학연구, 23, 57-72.
- 권동희, 2000, "지리학의 기초", 한국지리정보연구회, 지리학강의, 한울, 11-15.
- 권선정, 2003, "경관 텍스트로서의 지도 읽기", 문화역사지리, 15(2), 61-82.
- 권선정, 2003, "지도에 관한 해석적 접근", 지리교육, 5,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지리교육과, 221-234.
- 권선정, 2004, "생태중심적 환경관으로서의 풍수", 지리학연구, 38(3), 259-271.
- 권정화·이민부, 2003, "조선후기 팔도지도 충청도엽 사본의 소개와 해제", 지리교육, 5,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지리교육과, 173-182.
- 김남신, 2003, "축적별 지도요소의 표현방법 이해를 통한 지리학습 사례연구", 지리교육, 5,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지리교육과, 141-153.
- 김동실, 2003, "원격탐사와 GIS를 이용한 수도권 지역지리 학습자료 개발", 지리교육, 5,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지리교육과, 43-60.
- 김덕순, 1998, "초등 사회과 지도학습 모듈 적용 효과에 관한 연구: 3학년 을 중심으로", 초등교육과교육연구, 1,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80-104.

- 김덕현, 2004, "조선시대 읍치경관 읽기",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4 춘계 심포지엄, 1-36.
- 김동욱, 1997, 한국 건축의 역사, 기문당.
- 김석언, 2003, "지도교육의 기본 개념 및 지형도 읽기교육", 지리과교육, 5,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지리교육과, 83-92.
- 김일기, 2001, "지리학의 주요 개념에 대한 교수-학습", 지리과교육, 3,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지리교육과, 71-80.
- 김재기, 2003, "3차원 입체지도를 이용한 교수-학습 자료개발", 지리과교육, 5,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지리교육과, 167-172.
- 김창환, 1995, "고등학교에서의 지도교육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25(1), 39-56.
- 김호실, 2003, "지리 수업을 위한 그래픽 지도의 제작과 활용방안", 지리과교육, 5,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지리교육과, 15-26.
- 남상준, 1987, "사회과교육에서의 지리적 관점의 의의", 사회과교육, 20, 124-137.
- 남상준, 2003, "도해력 교육의 효용", 지리과교육, 5,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지리교육과, 7-14.
- 남호엽·조복희, 1999, "문화역사적 관점에 따른 지도학습지 교재구성", 사회과교육, 32, 75-91.
- 문옥표 역, 1998, 문화의 해석, 까치.
- 박계순, 2003, "백지도를 활용한 교수학습활동 연구", 지리과교육, 5,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지리교육과, 129-140.
- 박병수, 1990, "고등학교의 지도교육", 사회문화연구, 9,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3-59.
- 박병수·이재하, 1987, "지리학에 있어서 지도의 활용", 사회문화연구, 6,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18.
- 박서호, 1993, 사회와 공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조선시대 문중마을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주희, 2001, "지리교육에서 수치지도 활용방안",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희, 2003, "제7차 교육과정 10학년 사회교과의 지도교육 실천사례", 지리과교육, 5,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지리교육과, 61-82.
- 송인주, 1999, "초등사회과 교육에 있어서 역사지도 활용방안", 사회과교육, 32, 137-160.
- 신근하, 2003, "급간 분류(Classification)에 따른 단계 구분도 인식분석: 고등학교 지리부도를 중심으로", 지리과교육, 5,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지리교육과, 93-108.
- 신경준(박용수 해설), 1990, 산경표, 푸른산.
- 양혜련, 2003, "중학교 지도교육의 교수학습활동 향상을 위한 연구", 지리과교육, 5,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지리교육과, 27-42.
- 용호군, 1985, "지도를 이용한 simulation 학습의 효과적인 지도방안", 민족교육연구, 3, 춘천교대 민족교육연구소, 193-211.
- 유은경, 2001, "개념과 개념간의 관련성 이해증진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개발,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를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32(4), 이화여대 교육과학연구소, 61-98.
- 이상균, 2003, "고지도의 지리교육적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욱, 1978, "초·중등학교 지도 교육의 주요개념에 관한 연구", 지리학과 지도교육, 8(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36-74.
- 임병조, 2003, "지리부도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지리과교육, 5,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지리교육과, 115-128.
- 장재훈, 2002, "고지도를 활용한 연기지역 향토사 학습방안",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인철·심혜경, 2001, "중학교 사회과 지도수업에 관한 구성주의적 접근", 지리환경교육, 9(2),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49-62.
- 최남수, 1998, "지도교육을 통해서 본 도해력의 중요성", 지리환경교육, 6(1),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15-30.
- 최남수, 1999, "효율적인 지도교육을 위한 아동 공간 인지발달 연구", 지리환경교육, 7(1),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37-254.
- 최남수, 2001, "효율적 지도교육을 위한 아동의 공간 표상능력에 대한 접근", 지리학연구, 35(4), 한국지리교육학회, 325-333.
- 페르디낭·드·소쉬르(오원교 역), 1973, 일반언어학 강의, 형설출판사,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5, 웅진출판.
- 한균형, 2003, "지도제작과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리과교육, 5,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지리교육과, 1-6.
- 한인수 · 송중현, 1981, “초등학교 사회과 지도학습의 실태와 당면과제”, 지리학연구, 6(1), 한국지리교육학회, 31-55.
- 한희경, 2003, “공간적 사고능력 신장을 위한 투명 모형도 제작수업”, 지리과교육, 5,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지리교육과, 109-114.
- 홍기대 · 신순금, 1999, “초등사회과 지리영역에 있어서 효과적인 지도학습 방안: 3학년을 중심으로”, 지리학연구, 33(1), 한국지리교육학회, 29-42.
- 황만익 외, 2002, 인간사회와 환경, 지학사, 서울.
- Geertz, Clifford,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Selected Essays*, Basic Books, New York.
- Harley, J. B., 1978, L'Histoire de la cartographie comme discours, *Prefaces*, 5, 70-75.
- Harley, J. B., 1989, Historical geography and the cartographic illusion,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15(1), 80-91.
- Harley, J. B., 1992, Deconstructing the map, in Barnes, T. J. and Duncan, J. S. eds., *Writing Worlds, Discourse, Text and Metaphor in the Representation of Landscape*, Routledge, 231-247.
- Duncan, J. S. and Duncan, N. G., 1976, Social worlds, status passage, and environmental perspectives, in Moore, G. T. and Golledge, R. G. eds., *Environmental Knowing: Theories, Research, and Methods*, Hutchinson & Ross, Dowden, 206-213.
- Duncan, J. S. and Duncan, N., 1988, (Re)reading the landscap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6, 117-126.
- Laudan, L., 1977, *Progress and its Problems Toward a Theory of Scientific Growth*,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Barnes, T. J. and Duncan, J. S., 1992, Introduction, Writing worlds, in Barnes T. J. and Duncan J. S. eds., *Writing Worlds, Discourse, Text and Metaphor in the Representation of Landscape*, Routledge, 1-17.
- Wolter, John A., 1975, The Emerging Discipline of Cartograph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최초투고일 2004. 10. 01.
최종접수일 2004. 11. 25.